

포켓몬빵 인기로 '추억재테크' 뜬다...부작용 우려도

최근 재출시 이후 판매량 670만개로 인기

1세대 원조 캐릭터 스티커도 활발히 거래

직장인 김모(27)씨는 포켓몬빵이 인기라는 소식을 접한 뒤 학창 시절 버리지 않고 모아 왔던 피파피부실(됐다 불일 수 있는 캐릭터 스티커) 모음집을 집에서 찾아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스티커들을 팔게 되면 용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김씨는 "캐릭터별로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켓몬빵이 품질 대란을 일으켜 연일 인기인 가운데 재출시 전 캐릭터 스티커를 판매하려는 일명 '추억 재테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새로 나온 스티커에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각에선 스티커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년만의 상품 재출시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김씨처럼 1세대 원조 피파피부실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원조 포켓몬', '1세대 피파피부실' 등을 검색하면 글 50여개가 나온다. 재출시된 스티커 디자인이 과거의 것들과 다른 점을 이용해 과거 스티커들도 거래되는 것이다.

상품의 판매 지역과 연도 등이 중고 스티커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요소다. 한 네티즌은 서울 지역에서 1998년경에 모은 초판 스티커 76개를 30만원에 일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원조 스티커 151장을 150만원에 판매하는 네티즌도 있는데 과거 가격보

다 훌쩍 댄 시세에 쓸쓸한 '재테크'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 모았던 스티커들까지 중고시장에 내놓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는 최근 포켓몬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포켓몬빵이 지난달 24일 재출시된 이후 이날을 기준으로 한 달 만에 판매량 670만개를 기록했다. 편의점 등에선 입고 시간에 맞춰 손님들이 몰리는 '오픈런'도 벌어진다고 한다.

인기의 배경엔 캐릭터 스티커가 있는 가운데 새로운 스티커를 얻어 이를 웃돈에 판매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생긴다. 최근 SNS에선 정가가 1500원인 빵을 6900원에 판매한 업체가 논란이 됐다. 사재기한 빵을 스티커와 별도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거나 모조리 버리는 사례들도 나왔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일부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소비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빵이 주 상품이고 스티커는 사은품, 부속품에 불과하다"라며 "부속품을 얻기 위해 빵을 잔뜩 산 뒤 메인 상품을 버리거나 되파는 등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임을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쉐보레-여기여때, 봄철 가족여행 이벤트

응모 기간,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국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가 봄철 여행 시즌을 맞아 SUV 플래트폼 '여기여때'와 함께 프리미엄 수입 대형 SUV(스포츠투유틸리티차) 트래버스 시승기회를 제공하는 '트래버스 타고 블랙 여때?' 가족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쉐보레와 여기여때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지난 2월 대대적인 상품성 변화로 새롭게 출시된 트래버스의 최상위 트림 '하이컨트리'를 타고 여기여때의 프리미엄 SUV 카테고리인 '블랙'에 포함된 경주와 속초의 최고급 호텔·리조트를 1박2일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다. 응모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여기여때 앱을 통해 이벤트 접수가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여기여때 앱을 통해 발표된다.

당첨자는 회차별로 나눠 총 15개 팀을 선정, 4인 조식 이용권이 포함된 소노펠리체 델피노 속초 골드 스위트룸 혹은 힐튼경주 패밀리 스위트룸 숙박권(금~토, 토~일 중 택1)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 기간 동안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모델을 시승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이후 본인 SNS에 생생한 여행 후기를 업로드 한 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우수자 3명),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참가자 12명)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당첨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트래버스는 7인승 수입 대형 프리미엄 SUV로 동급 최대 차체 사이즈와 주행 퍼포먼스, 넓은 실내공간을 갖춰 가족 단위 여행자와 캠퍼들에게 인기 있는 모델이다. 2열에는 독립 캡틴 시트가 장착돼 탑승객들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3열 시트를 접지 않더라도 기본 65L 적재용량을 제공, 온 가족이 승차 공간을 활용하면서 많은 짐을 챙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슬비기자

'알러지 방지' 알레르망, 봄·여름 시즌 신제품 출시



7년 연속 백화점 판매 '1위' 알레르망이 봄맞이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신제품을 선보인다.

알레르망은 포근해진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다양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의 봄·여름(SS) 시즌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즌 대표 신제품은 ▲은은한 텍스처의 뉴트럴한 컬러로 정제된 고품스러움을 자

감각적인 스타일의 봄맞이 신제품 공개

아내는 '아크네' ▲그레이 톤톤의 텍스처 패턴에 점선 파이핑과 스트라이프 패턴의 겹날개 스타일링한 '루시엔' ▲실키한 터치감과 퓨어하고 심플한 스트라이프 자수포인트가 들어 트랜드한 호텔 베딩스타일의 '제클린' ▲빅 플라워 패턴으로 화사하고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이국적인 분위기로 표현된 '플레르' 등이다.

최근 호흡기나 알러지에 관한 건강 이슈가 더욱 부각되면서 알러지 방지 침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알레르망의 이번 신제품 역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 물질을 차단하는 '올트라 X-커버'와 '알러지 X-커버'가 적용됐다.

알레르망의 원단은 집먼지 진드기뿐만 아니

라 미세먼지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뛰어난 발습과 흡습성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알레르망은 침구 70만원 이상 구매 시 알레르망 스피크스 침대 VIP쿠폰(추가 10% 할인)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알레르망 관계자는 "침구는 침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알레르망은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나 소가족의 침실에 어울리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을 선보였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백화점 72개점과 스트리트샵 241개점에 입점해 있고, 3월 중 정읍점, 대구 수성못점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서울 경유 가격, 14년 만에 2천원대 돌파...휘발유값 곧 넘어서나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급 부족으로 경유값 상승세는 휘발유보다 더 가파른 양상이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98.93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22일 오후에는 ℓ당 2001.24원으로 2008년 7월 이후 13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2000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약 3주 사이에 400원 넘게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이날 오전 6시30분 2002.09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올랐으나, 현재(오전 10시20분)는 조정 양상을 보이며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경유 가격 급등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디젤 차량이 비중이 큰 유럽 지역에서 경유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경유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0%를 차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수급난으로 자동

2008년 7월 이후 13년 8개월만에 2천원 돌파



차용 국제 경유 가격은 21일 싱가포르 시장 기준 배럴당 144.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 110달러대였던 국제 경유 가격은 지난 9일 180.9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격차는 날로 좁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ℓ당 200원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100원 아래로 축소됐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기준 두 유형의 가격 격차는 약 84원이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되

면서, 경유 가격이 곧 휘발유 가격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경유 가격 할인폭이 휘발유에 못 미치면서 두 가격의 격차가 좁혀졌다고도 분석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 이후 휘발유는 ℓ당 164원 내렸지만 경유는 116원 인하됐다. 경유 할인폭은 휘발유보다 50원 가량 적었다.

백남진기자

삼성TV·LG냉장고 가격 더 오른다

러시아산 '원자재·물류비' 부담

가전업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속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행) 제품의 선적을 전면 중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삼성전자가 해상 물류 약화를 이유로 지난 5일 선적을 중단한 데 이어 LG전자도 21일 선적 중단을 결정했다.

삼성과 LG는 러시아 시장에서 가전부문 1, 2위를 차지한다. 이번 물류난으로 인해 핵심 부품 재고가 소진되면 러시아 현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공급망도 위협을 받으면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익성 부담도 우려된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재 구입에 103조7187억원을 지출했다. 삼성전자가 원자재에 100조원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TV 디스플레이 패널 원자재 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0년 5조4483억원에서 지난해 10조5823억원으로 약 2배 올랐다.

가전 부문을 담당하는 CE사업부는 지난해 매출 중 56.6%를 원자재에 사용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원자재 구입으로 나가는 비용 비중



이 2020년 47.7%에서 9% 가량 늘어난 것이다.

LG전자도 주요 생활가전 원재료인 철강·레진·구리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철강·레진·구리 구입비는 전년 대비 각각 21.9%, 18.2%, 15.1% 상승했다. 이중 철강 구입비는 1조6816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구리 구입비 역시 2020년 기준 2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338억원까지 늘었다. 이처럼 원가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성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매출이 74조7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1.1% 감소한 3조8637억 원에 그쳤다. 특히 H&A 부문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8% 줄었다.

이에 따라 양사 가전의 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TV 평균 판매 가격을 전년 대비 약 32% 올렸다. LG전자도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을 각각 10% 가량 인상했다.

오윤나기자

오늘부터 30일까지

이마트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딸기 뮤지엄' 행사를 진행한다. 딸기 뮤지엄은 일반 딸기부터 프리미엄 딸기까지 총 11종의 다양한 딸기 품종을 선보이

는 행사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평소 물량보다 약 50% 더 많은 300톤의 물량을 준비해 다양한 품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새벽딸기·딸기다함(각 1.2kg, 국내산)'을 9900원에, '담양딸기(750g, 국내

산)와 비타베리(400g, 국내산)를 각각 8980원, 7980원에 판매한다.

하얀딸기(특 330g/대 450g, 국내산)와 만년설딸기(350g/450g, 국내산)는 각각 1만2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